

백견(百見)이 불여일타(不如一打)

바위는 겉과 속의 색깔이 다르다. 바위의 겉은 광물의 풍화(風化)로 색깔이 변하므로 그 속색깔을 알아보려면 망치로 풍화된 겉을 때어내야 한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이를 '백견(百見)이 불여일타(不如一打)' 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지질학계에는 야외 지질조사를 기피하고 실내에서 시료를 분석하는 경향이 만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지질학의 진리를 캐러 야외로 나가자.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는 우리가 흔히 듣는 속담이다. 궁금해서 백번(또는 그 이상 아무리 많이) 말로 물어 보아도 한번 눈으로 보는 것 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서양에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속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보일 때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보아도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진실은 밖에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감춰진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질학의 연구대상인 바위가 보여주는 색깔이다. 붉게 보이는 바위의 속은 푸른 색일 수도 있고 하얀 색일 수도 있다. 광물과 바위는 주로 물의 영향으로 시간이 가면서 화학적 성분이 변하고 물리적 성질이 바뀐다. 소위 풍화(風化)되는 것이며 새로운 광물이 만들어진다. 그에 따라 광물의 색깔이 변하고 당연히 바위의 색깔도 달라

진다. 지질학자에게 풍화된 색깔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먼저 신선한 색깔을 알아야 한다. 특히 야외에서 기반암(基盤岩)이 노출된 노두(露頭)를 조사하는 야외 지질조사에서는 바위의 신선한 색깔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은 위의 속담을 적절히 바꾸어 '백견(百見)이 불여일타(不如一打)' 라고 한다. 아무리 눈으로 많이 보아도 한번 망치로 때려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그렇다! 바위는 속의 신선한 부분과 그 부분이 겉에서 비 바람에 풍화되어 보이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질학자들은 바위를 오래 연구하면서 바위의 진실된 색깔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위를 망치로 때린다. 풍화된 겉부분이 떨어진 다음에야 신선한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정보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책상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많아진다. 또 지질학계에서는 고생스레 산을 헤매는 야외 지질조사를 기피하고 실내에서 암석시료(試料)의 화학성분을 분석해 표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해석하는 경향이 커진다. 그런 분석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분석의 재료가 되는 바위는 산에 있다. 또 그 바위는 실험실에서 알 수 없는 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답안도 가지고 있다.

3월 들어 날씨가 풀리면 지질학자들은 망치를 들고 능선과 골짜기에 나타난 노두를 찾아간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백견이 불여일타' 라는 경구가 멀어지고 나즈막하게 들리는 최근의 지질학계의 연구분위기가 안타깝다. 지질학자, 특히 젊은 지질학자들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들은 젊기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기 시작한 컴퓨터의 장점을 빨리 알아차리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로 요약되는 일들을 기피하는 문화와 의식에 빨리 젖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맑은 공기와 함께 하는 야외 지질조사야말로 지질학의 근본에 다가가고 지질학적 진리를 캐는 열쇠다. 야외 지질조사 만세! ①7



蔣 舜 權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